

기रो에 선孫, 침거 후 잠행 왜?

‘불리한 경선’ 돌파구 찾기 초강수

추석 연휴 ‘동정론’ 일으켜 분위기 바꾸기

“조직선거 대책 세워라” 최후 통첩성 경고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잠행에 들어감에 따라 신당 경선이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경선을 중도 포기할 바 있는 손 후보가 또 다시 사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손 후보가 후보 사퇴 등 중대 결단을 위한 장교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손 후보는 갈수록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선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일정 중단과 잠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추후 이뤄지는 경선에서도 정 후보 측의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정 후보에게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선 실패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 후보의 일정 취소와 침거, 지방행 등 연이은 초강수는 국민에게 동원·조직경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호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손학규 동정론’을 확산시키고 경선 분위기를 바꾸려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 지도부에도 “당장 동원·조직선거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 후보의 사퇴는 결국 신당의 경선 파국과 이

어지며 민주당 후보는 물론 문국현씨 등 장외의 주자들과의 후보단일화에도 악영향을 미쳐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태홍 의원을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경우 손 캠프 쪽으로 합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손 후보의 사퇴가 이뤄진다면 이는 경선 파국뿐만 아니라 범여권의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며 “손 후보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번 경선에서 모든 힘을 모아 손 후보를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후보의 초강경 행보의 배경에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경선 룰 변경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손 후보가 이르면 2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직·동원 선거에 대한 부담감을 대국민 호소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당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선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침거가 길어진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미 조직·동원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부겸 선대본부 부본부장 등은 21일 “손 후보가 (캠프에) 동의하지 말고 의연하게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며 “후보도 적절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 앞에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택 침거 하루만에 지방으로 잠적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가 20일 경기 화성 남양성모성지에 모습을 나타냈다. 손 후보의 표정이 비장하다. (동아일보 제공)

孫캠프 대세 만회 ‘안간힘’

광주·전남본부 “박시장·박지사 孫후보 지지”

시·도지사측 “특정후보 지지 있을 수 없는 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 캠프는 20일 손 후보의 침거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광주·전남 경선(29일)을 앞두고 지지 선언과 시국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대세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캠프측은 이 과정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희 전남지사가 손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박심(朴心)’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 후보 광주·전남경선대책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최근 당원들과의 사적 자리에서 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또한 박 시장과 박 지사를 지지하는 신당의 광주·전남지역 지구당 간부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손 후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광태 시장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한 오주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선형체·추한창 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 전 민주당 당직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9일 광주·전남 경선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사적 선거”라며 “많은 고민과 번뇌, 토론을 거쳐 낡은 경제, 부패 경제로 얼룩진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인 손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시·도지사측은 대선 후

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측 관계자는 “누구를 지지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의사에 맡겼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손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광주·전남지역 교수 284명도 이날 ‘대통합신당은 민주주의와 광주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자발적 국민참여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국민경선이 낡은 정치와 조직 선거의 마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당 지도부의 각성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경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해찬 ‘광주 공략’ 본격화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 갖고 전남대서 특강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후보는 20일 오전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캠프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전남대에서 특강을 갖는 등 본격적인 ‘광주 공략’에 나섰다. 한명숙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 캠프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전남지역 선대위 관계자들과 경선 전략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논란과 관련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선거 등의 문제로 인해 경선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곧 대선 위기,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양승조 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시청을 찾아 박광태 광주시장과 20여분간 면담을 가졌다. 이 후보와 박 시장의 면담은 이날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경선대책본부에서 ‘박 시장의 손 후보 지지 표명’을 주장한 직후여서 눈길을 모았다. 이 후보는 박 시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후보의 침거에 대해 “어렵더라도 이미 시작된 경선이기 때문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후보가 20일 오전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캠프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분노 풀렸느냐”에 “꽃이 아름답네” 선문답

孫, 마티즈 들고 절두산·남양성지 방문 후 행방 감춰

경선과정의 구태를 비판하면서 TV토론에 불참한 지택 침거에 들어갔던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가 20일 당초 계획을 변경, 지방으로 떠났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자택인 마포구 도화동 W 아파트를 나섰다. 그는 김지하 시인의 신간 기행문집 ‘예감’을 손에 들고 있었다. 경차인 마티즈 2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순교자 성당에 들른 손 후보는 마리아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1~2분간 묵상하고 ‘시인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짊어’란 조각상 앞에서 된

가를 메모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다시 차에 오른 손 후보는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듯 차선을 이리 저리 바꾸며 속도를 냈고 그의 차를 놓친 취재진은 이후 경기도 일원에서 수차례 그와 숨바꼭질을 벌였다. 손 후보는 오전 10시경 경기 화성 남양성지에 도착해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한 뒤 실례로 들어가 전경하는 초등학교생들과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손 후보는 “분노가 좀 풀렸느냐”, “내일 여의도에 돌아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듯 “은행일이 벌써 누래지기 시작했다”, “꽃이 아름답네”, “좋은 가을이야”라며 동문서답만 했다. “내일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잘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것이 고작이었다. 남양성지를 나선 손 후보의 차는 수원으로 향했고 곧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는 오후 2시경 취재진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손 후보가 이날 자택침거 후 첫 방문지로 전주고 절두산 성지와 남양 성지를 택한 것은 나름의 상징적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손 후보측은 한결 같이 “경선을 완주,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초 자택에 침거하겠다는 손 후보가 돌연 지방행을 떠나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가 후보사퇴 등 중대결단을 위한 장교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주자 시절인 지난 3월 “당의 주인으로서 당을 바꾸려 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잠적, 강원도 낙산사, 봉암암, 용화사, 경기도 의왕시 기도원 등에 머물다 닷새만에 상경, 한나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연평뉴스

**산행안내**

9월 22일(토)  
▲광주도요산악회 고층 관음선 9월22일(토) 08시 광주역(부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광주젊은산악회 자리산 천왕궁 9월22일(토) 08시 광동(부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youngm outain T.011-611-4257  
▲나시모산악회 대양 불태사 9월22일(토) 08시 동광주 홈플러스 앞 출발 http://cafe.daum.net/gwasamo T.062-7223, 011 621 7201  
9월 23일(일)  
▲광주비거리산악회 전남 부안 천계 승단산 9월23일(일) 08시 광주역(다음카페:광주비거리) 출발 T.011-640-0871  
9월 28일(수)  
▲팔성산악회 덕유산 대악상 철여폭포 9월28일(수) 07시 40분 봉안총학교(백은보리)대,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다음카페:팔성관광 T.011-605 3477  
9월 27일(목)  
▲광주한국산악회 광양 백운산(여불봉,노봉이봉) 9월27일(목) 07시50분 연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가고파산악회 전북 진안 구룡산 9월27일(목) 08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angopasan T.011-629-2678, 011-9612 5191  
9월 29일(토)  
▲무등도요산악회 경남 비양기지산 9월29일(토) 06시30분 시정(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udeung T.010-9942-8000  
▲광주도요산악회 장수 장안산 9월29일(토)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 608 4267, 011 634 2044  
▲광주메이리산악회 삼척 용궁산 울소골 부라2일산행 및 환선굴 탐구공회광 9월29일(토) 21시 시청앞 출발 http://cafe.daum.net/mkyw T.011-601-2894  
9월 30일(일)  
▲광주신가족 협양 선봉산, 근대선 9월30일(일) 08시 대인관광(삼성출판사경유)출발 T.019 499 1465, 011 9608-3357  
▲요산회 충북 괴산 칠보산 9월 30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광주자연보존산악회 약산 산군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http://cafe.daum.net/JATNSAN T.011-666-3291  
▲나시모산악회 호남정맥(리재-메리) 9월30일(일) 07시30분 연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samo T.062-266 7223, 011 621 7201  
▲무등산악회 춘천 오봉산 9월 30일(일) 06시30분 롯데백화점 정문(두양동 은행원경유)출발 T.011-602-6278  
▲호남산악회 서울 노봉산 9월 30일(일) 06시20분 천왕봉(태마도) (광주역광장,문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호남산악회 T.010-6216-7231, 011-605-5034  
▲광주산악회 고층 금산 적대봉 9월30일(일) 07시30분 연주체육관(대인관광,홈플러스경유)출발 T.365 3612, 011 649-3612  
▲광주새무등산악회 군산시 고운산도 신시도 대가산 일출행 9월30일(일) 08시 대인관광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10월 1일(월)  
▲광주영문산악회 경복 성주지속리산 묘봉 10월1일(월)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ppppp0555 T.011 602 3709, 011 633 9248  
10월 2일(화)  
▲영주산악회 함양 삼봉산,금대산 10월2일(화) 08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선착순예약접수 T.011 608-2208  
10월 6일(토)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설악산 대청봉 구약2일산행 10월6일(토) 21시 천대병원웅곡길(지하철3번출구)정문(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T.010-9445-9544  
10월 12일(금)  
▲광주철도산악회 금강산 단풍 열차여행(부박3일)250,000원, 오대산 소금강 단풍열차(부박3일) 70,000원(10월12일 금요일 19시 광주역출발) T.515-7788  
10월 13일(토)  
▲광주한길산악회 흥도 가거도 특선산 10월13-14일(토,일)한라산 10월27일-28일(토,일) http://cafe.empcos.com/nangil T.222 3253, 010 7619 0559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계입감독지도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진)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정)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